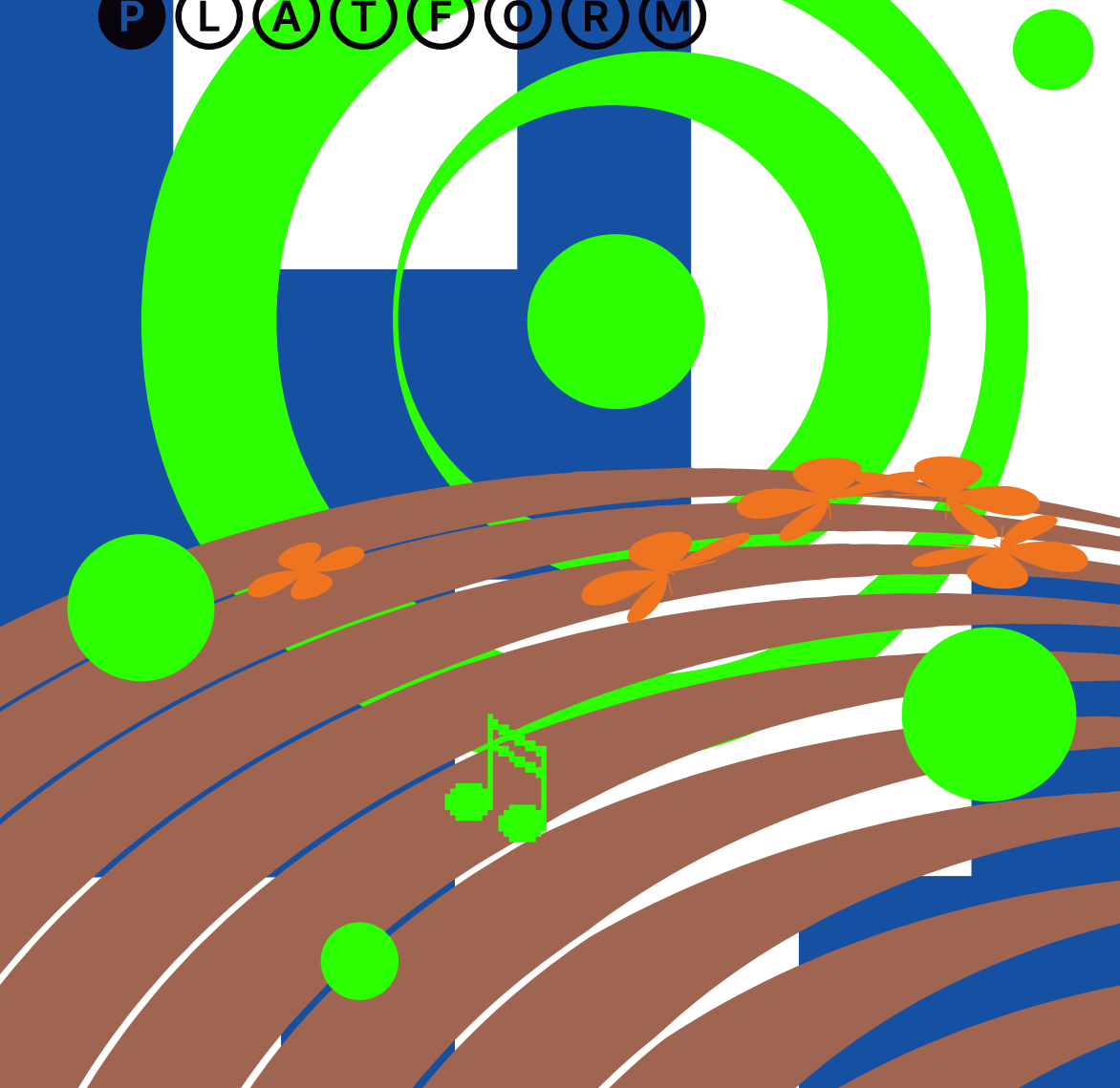


2023 인천아트플랫폼 14기 레지던시 프로그램

14TH RESIDENTS
ARTISTS OF
INCHEON ART
PLATFORM



인천아트플랫폼은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연구자를 공모로 선발하여, 창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가 간 교류와 협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 및 비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창작 및 발표 지원, 예술가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술 창작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실험적 예술 활동을 지지하며, 학제 간 연구와 통섭을 추구하고 새로운 창작 에너지를 촉발시켜 나갑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장소성과 역사성, 지역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국제적-지역적인 특화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지역의 문화 활성화뿐만 아니라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 네트워크와 새로운 예술영역으로의 확장을 도모하여 예술 창작실험의 장이자 국제 예술 허브로서 기능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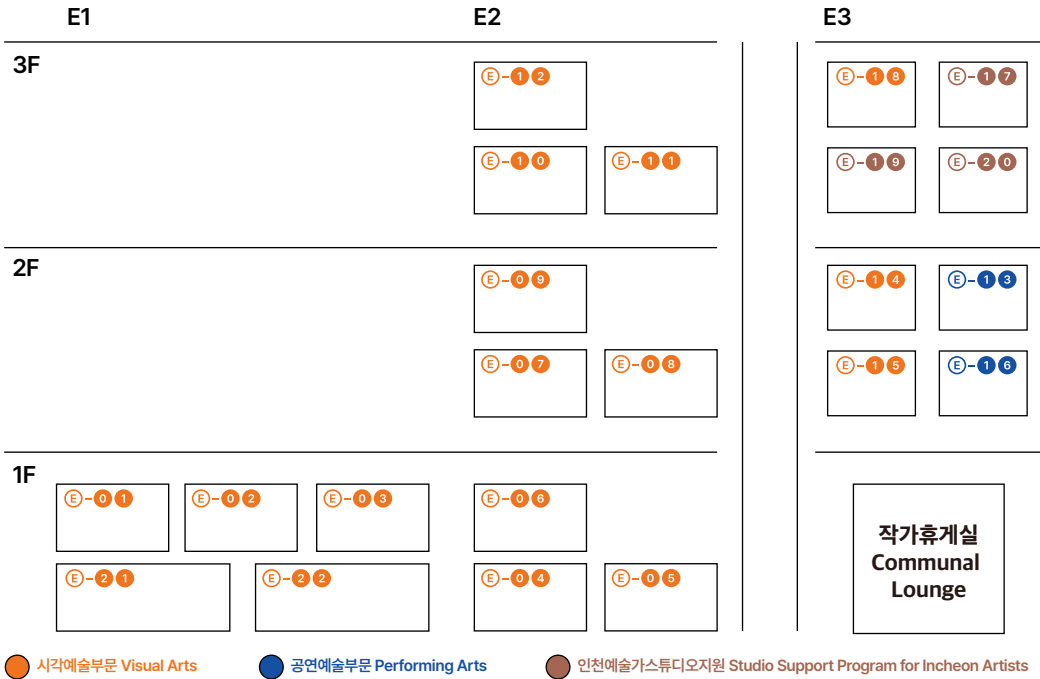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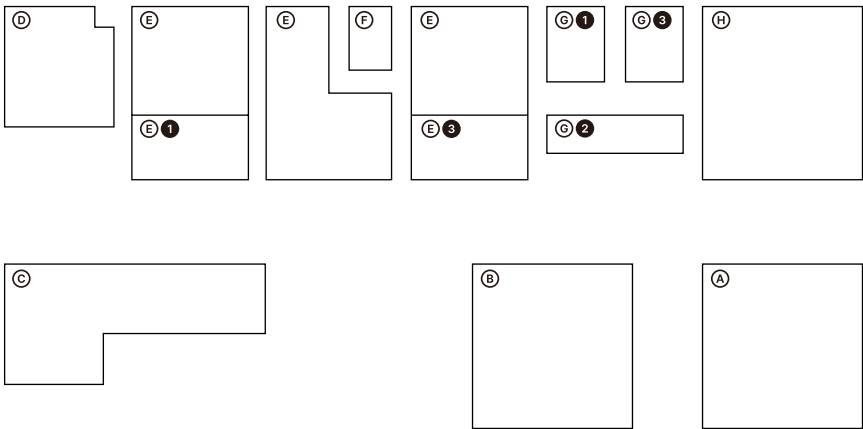
Incheon Art Platform (IAP) is a place for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and, researchers working across diverse genres of contemporary arts. With the artist-in-residence (AIR) at its core, the IAP provides a variety of programs that enhance arts activities, such as artist exhibitions or performances, and participatory education programs for resident artists. The AIR program's main focus is providing a collaborative environment and fostering exchanges between the artists. IAP seeks out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and encourages sharing ideas of the artists working across various genres.

IAP will continue to precede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projects that resurface its historical identities in Incheon and hold regional communities together. In the meantime, working as a global hub for contemporary arts and culture, IAP aims to be the institution at the front line of contemporary arts, building a system that enhances artistic experiment in whole.



공간 안내

FACILITIES & ARTISTS STUDIOS



시설 현황 Facilities Status

Ⓐ	인천생활문화센터	INCHEON LIVING CULTURE CENTER
Ⓑ	전시장 1	GALLERY 1
Ⓒ	공연장	THEATER
Ⓓ	인천아트플랫폼 사무실	IAP OFFICE
Ⓔ-1~3	아티스트 스튜디오	ARTIST STUDIOS
Ⓔ-1	아티스트 스튜디오, 전시장 2	ARTIST STUDIOS, GALLERY 2
Ⓔ-3	아티스트 스튜디오, 프로젝트 스페이스 3	ARTIST STUDIOS, PROJECT SPACE 3
Ⓕ	게스트 레지던스	GUEST RESIDENCE
ⓐ-1	프로젝트 스페이스 1	PROJECT SPACE 1
ⓐ-2	공동 작업실	COMMUNAL STUDIO
ⓐ-3	프로젝트 스페이스 2	PROJECT SPACE 2
Ⓗ	인천생활문화센터	INCHEON LIVING CULTURE CENTER

스튜디오 현황 Studio Status

Ⓔ-11	윤제원 YOON Jewon	Ⓔ-14	유소윤 RYU Soyeon
Ⓔ-12	김시원 KIM Siwon	Ⓔ-15	국제 기관교류 프로그램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13	황규민 HWANG Kyumin	Ⓔ-16	오헬렌 Ohelen
Ⓔ-14	정덕현 JEONG Deokhyeon	Ⓔ-17	강 철 KANG Chul
Ⓔ-15	박지혜 PARK Jihye	Ⓔ-18	국제 기관교류 프로그램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16	백종관 PAIK Jongkwan	Ⓔ-19	김진주 KIM Jinju
Ⓔ-17	현승의 HYUN Seungeui	Ⓔ-20	박유미 PARK Yumi
Ⓔ-18	임선구 IM Sungoo	Ⓔ-21	윤재민 YOON Jaemin
Ⓔ-19	이민지 YI Minji	Ⓔ-22	한재석 HAN JSUK
Ⓔ-20	최가영 CHOI Kayoung		
Ⓔ-21	배윤환 BAE Yoonhwan		
Ⓔ-22	임호경 IM Hokyong		

시각예술부문

V I S U A L A R T S

- | | |
|-----|-----------------|
| 김시원 | KIM Siwon |
| 박지혜 | PARK Jihye |
| 배윤환 | BAE Yoonhwan |
| 백종관 | PAIK Jongkwan |
| 유소윤 | RYU Soyoon |
| 윤재민 | YOON Jaemin |
| 윤제원 | YOON Jewon |
| 이민지 | YI Minji |
| 임선구 | IM Sungoo |
| 정덕현 | JEONG Deokhyeon |
| 최가영 | CHOI Kayoung |
| 한재석 | HAN JSUK |
| 현승의 | HYUN Seungeui |
| 황규민 | HWANG Kyumin |

서울과 경기에서 활동

김시원은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작업의 주요한 소재 또는 주제로 삼는다. 지시문, 반복, (전시) 공간, 비물질과 같은 단어를 이리저리 굴리는 것에 관심을 두고, 글을 쓰고, 쓴 글을 다시 따라가며 일시적인 실천을 만들어 낸다.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세 가지 형태의 작업을 준비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동시대 예술가(되기)의 조건을 탐구하고(<무제(예술가)>),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에서 인천아트플랫폼까지 10시간 동안 걸었던 퍼포먼스를 뒤집어 2023년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창동레지던시까지 걸기로 결심한다(<무제(걷기)>). 또한 오픈스튜디오라는 사적 공간(작업실)과 공적 공간(전시장)이 겹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용한 설치 작업(<무제(오픈스튜디오)>)을 이어가고자 한다.

Based in Seoul and Gyeonggi

KIM Siwon utilizes given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as the main material or subject of his work. He carefully explores concepts such as instruction, repetition, (exhibition) space, immaterial, examines them closely, writes, follows the written text again, and creates temporary practices.

For his project at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 plans to execute three distinct works. Firstly, he will explore the conditions of being a contemporary artist with the piece *Untitled (Artist)*. Secondly, he will reenact a 10-hour performance in which he originally walked from the MMCA Chang-Dong Residency to the Incheon Art Platform in 2010, this time walking reversely from the Incheon Art Platform to the Changdong Residency, which will be entitled *Untitled (Walking)*. Additionally, he intends to continue his installation work *Untitled (Open Studio)*, using the nature of an open studio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private space (studio) and public space (exhibition space) intersect.

nowismilk@gmail.com

ifoundsomethinghot@gmail.com

www.kimsiwon.com

www.jihyepark.kr

1987년 부산 출생, 서울과 인천에서 활동

박지혜는 암묵적 합의를 매개로 하는 사회의 질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이라고 믿는 가치 기준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작가는 실패를 줄이는 효율적인 예술 생산 방식을 탐구하며, 작품에 형식, 규칙, 단위로 구분되는 공산품, 디자인, 생활 양식을 차용하는 입체, 설치 작업을 전개해 왔다. 또한 2015년에 발간한 예술 노동 가이드북 『실전작업요가』를 비롯하여 2018년 소설 『표준의 탄생』 등 길고 짧은 글을 생산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작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최근 프로젝트 《아들의 시간》(2022)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 도서 지역 리서치를 바탕으로 역사를 다루는 작업을 진행하여 사물의 이미지와 서사를 탐색하는 한편, 개인이 배제된 시스템에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Born in Busan in 1987, based in Seoul and Incheon

PARK Jihye explores the social order that is shaped by unspoken consensus and constantly challenges our norms. Her practice encompasses three-dimensional works and installations, aiming to discover efficient methods of art production that minimize the possibility of failure. The artist draws inspiration from manufactured goods, designs, and *life styles* that are articulated by formats, standards, and units. Additionally, she engages in writing both long and short texts, including the publication of the art labor guidebook *Let's Practice Work Yoga* in 2015, and the novel *The Birth of Standards* in 2018. Through diverse use of media, she has been expanding the scope of her artistic endeavors.

At Incheon Art Platform, she plans to complete the second phase of her latest project, *Son's Time* (2022). Grounded in research on Incheon's island communities, the work delves into micro-histories that weave through communities, exploring the imagery and narratives associated with objects, while critically examining systems that marginalize individuals.



1983년 충주 출생, 서울에서 활동

Born in Chungju in 1983, based in Seoul

배운환은 서원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가천대학교에서 회화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근 관심사는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적 이슈에 대한 회화적 발현이다. 이는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주로 의인화된 동물을 등장시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화려한 색채로 시종일관 위트와 생동감 있게 묘사된 화면은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그 주제의 심각성에 맞서 보편적인 회화적 순수성이 경감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기간에는 <코너(CORNER)> 라는 작업을 계획 중이다. 작품 제목 <코너>는 "권투 경기장에서 라운드 도중 선수가 잠시 쉬거나 코치의 작전을 듣는 위치"라는 뜻으로, 구석이나 모서리로 밀려나는 혹은 밀려나지만 버티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작가는 직접 작성한 복싱 경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간 영상 작업을 위해 쓰인 뒤 작업실 구석에 방치되었던 인형과 소품을 활용하여 조각과 설치 작업 형태로 제작하고자 한다. 이는 아직 제작되지 않는 영상의 장면을 유추하거나 상상하게 하는, 일종의 주요 스냅 사진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것이다.

BAE Yoonhwan received his BFA in Western Painting from Seowon University and his MFA in Painting from Gacheon University. His current focus lies in the pictorial expression of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that are universally relevant to humanity. He achieves this through the use of anthropomorphic animals, offering an objective perspective on global concerns. The vibrant and dynamic depictions aim to convey the artist's message subtly, without compromising the inherent purity of painting.

For his project at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 is planning a work entitled *Corner*. The title refers to the boxing term that signifies the space in a boxing stadium where a boxer takes a break between rounds or receives instructions from their coach. The work aim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beings who find themselves pushed into corners or trapped in challenging situations, as well as those who endure and persevere despite adversity. Drawing inspiration from a self-authored boxing match narrative, the artist will bring the story to life through the creation of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Utilizing puppets and props that were previously employed in video works and were stored in the corner of the studio, he will recreate a pivotal moment, resembling a key snapshot that allows viewers to infer or imagine scenes from a yet-to-be-made movie.

ssu474@naver.com

radiobeck@gmail.com

blog.naver.com/ssu474

www.jongkwanpaik.com

1982년 수원 출생, 서울에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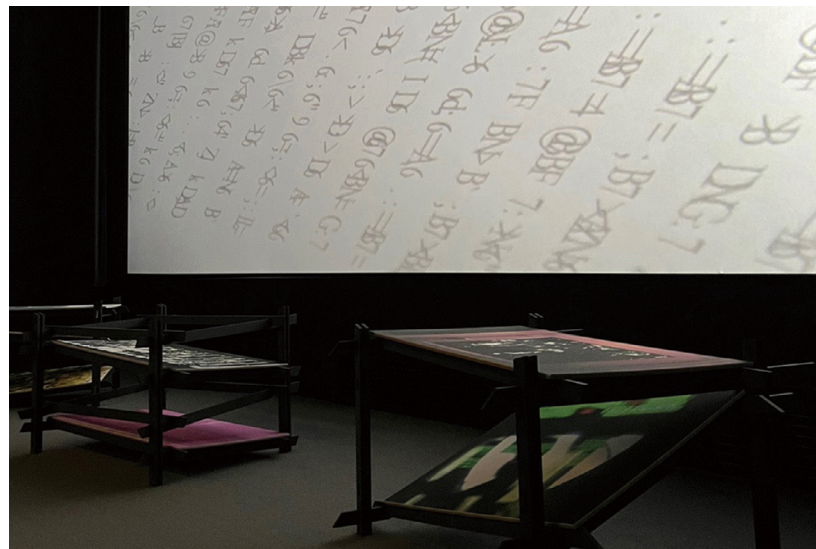
Born in Suwon in 1982, based in Seoul

백종관은 아카이빙과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실험적인 영상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작가는 일상의 사건을 비일상적인 시선으로 접근하여 이미지와 사운드를 채집하고, 그들이 각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회적 맥락을 전유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주로 수집한 푸티지들을 활용하여 시청각 매체/장치 자체에 대한 역사와 운명을 사유해 보는 작업, 미학적 혹은 정치적인 경계에 관해 묻는 작업을 전개한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실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의 감각이 휘발되어 버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기에 탈각되는 시간성을 다시 상기해 보고, 과거에 대한 기억, 현재의 범주화, 미래에 대한 사색을 잇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작가는 거리와 속도가 서로 상이한, 완전히 다른 스케일에 기반하는 세계들을 오가며 각 세계를 구현하는 도구들, 기술적 환경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 인간과 비인간적 존재들 간의 관계를 되돌아볼 계획이다. 이는 전혀 다른 시간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PAIK Jongkwan has been creating experimental video works centered around archiving and research. The artist adopts an extraordinary perspective when approaching everyday events, gathering images and sounds to explore how they can be recontextualized within social contexts. By predominantly utilizing collected footage, the artist delves into the history and fate of audiovisual media/devices, prompting questions about their aesthetic and political boundaries.

For his project at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 intends to examine temporality in the post-COVID pandemic era. During this time, alternative senses of time have become volatile, and he aims to connect memories of the past, the categorization of the present, and contemplations of the future. The project refl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onhuman entities by investigating the shifts in technological environments and the tools that enable us to navigate and realize diverse worlds with varying scales, distances, and speeds. Additionally, the project seeks to reconstruct a distinct temporality.



1993년 서울 출생, 서울, 인천, 부산에서 활동

유소운은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정치학과 미술사를 전공한 뒤 소아스(SOAS) 런던대학교에서 미술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22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미술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근현대 및 동시대 미술을 광범위하게 연구하되, 공동체와 환경, 휴과 땅에 기반한 제도와 자생적 예술 활동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 2019년부터 시각예술 콜렉티브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에서 작가와 연구자로 활동하며, 글을 쓰고 작품을 만들며 대화와 행위를 매개한다.

인천아트플랫폼에 머무는 동안 작업과 연구를 겸하여 과거의 선례를 역사화하는 일에 동시대 현장 비평의 요소를 더하는 글을 써보고자 한다. 특히 1980년 후반에서 1990년대까지 '인천 미술패 갯꽃'을 중심으로 활동한 작가들의 생태사회주의적 전환에 주목하고, 이들의 사회주의적 노동 운동이 생태 운동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추적할 예정이다. 작가적인 접근과 학술적 방법론을 교차하는 이론 실험이자 과거와 현재가 능동적으로 연결되는 역사서술학적 실험이 되길 기대해본다.

Born in Seoul in 1993,
based in Seoul, Incheon, Busan

RYU Soyoon holds a B.A. in Government and the History of Art from Cornell University and an M.A. in Contemporary Art from SOAS, University of London. She is currently a Ph.D. candidate in the History of Art at University of Michigan. Her work focuses extensively o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from Northeast and Southeast Asia, with a particular interest in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and environment, soil and land-based institutions, and indigenous artistic practice. Since 2019, she has been working as an artist and researcher in the visual arts collective Rice Brewing Sisters Club, where she writes, creates artworks, and mediates conversations and actions.

During her residency at Incheon Art Platform, she aims to integrate art practice and research, specifically by exploring potentials and perils of incorporating contemporary criticism into the contextualization of historical precedents. Her primary focus will be on the eco-socialist transformation of artists who were involved in the Incheon Art Collective Gaetkkot in the late 1980s and 1990s. She intends to trace the evolution of their socialist labor movement into an ecological movement, highlighting the transition and its significance. This endeavor is envisioned as a theoretical experiment that intertwines scholarly and artistic approaches, as well as a historiographical experiment that actively connects the past and present.

ryusoyoon@gmail.com

yoonjaemin@gmail.com

1989년 대구 출생,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

윤재민은 사운드, 영상, 설치를 기반으로 가상의 이미지나 허구의 사건을 만들고, 이를 통해 관객 개인의 보이지 않는 인식과 이미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작가는 개인과 사회 속 심리적 경계를 다원적인 층위에서 표현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개인적이고도 새로운 인식의 경험 자체에 주목한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이주와 다큐멘터리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주민이나 난민들과 교류하여 다양한 음악 생활을 리서치하고 영상으로 기록하고자 한다. 작가는 단순하게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넘어, 특정한 목적과 상황 속에서 각 나라를 떠난 이들이 인천을 마주하고 충돌하는 지점을 다룰 예정이다. 이는 이주민이 겪는 현실과 감정들을 공유하는 다큐멘터리이자, 이주에 관한 새로운 이미지를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Born in Daegu in 1989, based in Seoul

YOON Jaemin employs sound, video, and installation to create fictional images or events, aiming to highlight the disparity between the viewer's subjective perception and the depicted image. Through these works, the artist seeks to convey the intricate psychological boundaries that exist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while employing a multilayered approach. The artist emphasizes personal experiences and the emergence of new perceptions within this framework.

For the project at Incheon Art Platform, YOON intends to embark on a fresh approach to migration and documentary. The artist plans to conduct research on the musical lives of diverse migrants and refugees residing in Incheon, which will be documented on video. Moving beyond a mere historical perspective, the artist's objective is to capture the moments where the migrants and refugees from various countries intersect and collide within the specific contexts and situations found in Incheon. The resulting work will serve as a documentary, sharing the realities and emotions experienced by migrants from each country, while also offering a transformative journey that explores new representations of migration.

www.yoonjaemin.myportfolio.com



OFFICIAL
TRAILER

1981년 부산 출생,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

윤제원은 디지털 게임을 작업의 주요한 요소로 삼고, 가상과 현실의 역학 관계에 주목한다. 세계적인 게임의 국내 탑 랭커이자 게임 커뮤니티의 유저 매니저로 활동했던 작가는 자신의 경험과 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을 통해 '가상과 현실', '사이버 스페이스와 게임'의 미학적 토대를 도출하고, 예술을 플레이하는 '예술하기'에 도전 중이다. 아날로그 미디어(회화, 설치)와 디지털 미디어('아트 게임') 매체를 기반으로 조형적 실험을 전개할 뿐 아니라, 전시를 기획하고, 게임이론을 연구하는 등 다학제적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기존 게임 요소를 변형해 만든 2차 창작 콘텐츠를 일컫는 '모드(MOD, modification of 약자)'를 연구하여, 다양한 예술적 표현 가능성을 심화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게임의 형식을 갖춘 '아트 게임'을 토대로 배포/공유/소유의 형식을 탐구하고, 이를 작업의 형태로 풀어내려 한다.

Born in Busan in 1981, based in Seoul

YOON Jewon's artistic practice centers around digital gam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exploring the interplay between virtuality and reality. Drawing from his personal experience as a user manager in a gaming community and achieving high rankings in global games, the artist establishes an aesthetic foundation rooted in the concepts of "virtuality and reality," "cyberspace and games." YOON challenges the notion of "doing art" by engaging in artistic endeavors through the act of playing. His work spans across various mediums, including analog media (painting, installation) and digital media ("art game"), and extends to multidisciplinary explorations through curating exhibitions and conducting game theory research.

During the residency at Incheon Art Platform, YOON will delve into the study of "MOD" (abbreviation for modification), which involves the creation of secondary creative content by altering existing game elements. Through this exploration, YOON aims to deepen the possibilities of artistic expression. Furthermore, building upon the concept of 'art games' that take the form of digital games, the artist will investigate issues related to distribution, sharing, and ownership, aiming to address them through the creation of artworks

kakan81@naver.com

mmminjiyi@gmail.com

blog.naver.com/jewonyoon

www.instagram.com/mmminjiyi

1986년 서울 출생,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

이민지는 홍익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다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이라는 광학적 경험과 감각의 '시-차'에 관심을 두고, 이에 기반한 사진 작업을 글쓰기, 영상으로 옮기고 있다. 최근에는 본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 감각들과 타자에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다른 방식의 사진-이미지로 드러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한다.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기간에는 본다는 감각으로부터 사진이 어떻게 이미지를 만드는지 다시 묻는 기회를 발견하고, 다른 방식의 보기를 시도해보려 한다. 팬데믹의 시간간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일상적인 감각과 몸의 경계에 대해 재감각하게 했듯, 인천의 유희하는 땅과 그곳에 정착한 임시적인 장면들을 기록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이미지의 경계를 더듬어 볼 예정이다. 동시에, 공동체가 빛을 통해 공동의 기억을 만들듯, 사진-이미지를 지금 이곳을 공유하는 하나의 시간간으로 바라보며 사진의 테두리를 살펴보는 계기로 확장하고자 한다.

Born in Seoul in 1986, based in Seoul

YI Minji began taking photographs while studying architecture at Hongik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the optical experience of seeing and not seeing, as well as the 'sight-lag' between the senses, which she explores through her writing and video. Recently, she has been focusing on the interconnectedness of seeing with other senses and the various ways it can be revealed through photography and images.

During her residency at Incheon Art Platform, she has found an opportunity to reexamine how photography creates images based on the act of seeing and to explore alternative perspectives. Just as the pandemic has heightened our sensitivity to the boundaries of our everyday senses and physical bodies—such as sight, hearing, smell, and touch—she will delve into the boundaries of the surrounding image by documenting the fluid landscapes of Incheon and the fleeting moments captured within them. At the same time, the artist seeks to expand the horizons of photography by viewing it as a shared space and time, similar to how a community collectively shapes its memory through light.



그라운드링, 빛의 공동체, 2022, 아카이브 피그먼트 프린트, 130×100cm.
Grounding, Solidarity of light, 2022, archival pigment prints, 130×100cm.



1990년 인천 출생,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

임선구는 종이와 흑연을 기반으로 크고 작은 이야기의 단위를 만들고, 이를 견고하게 엮어 입체적인 서사를 구축해 나간다. 삶의 언저리에 편재하는 타인과 집단의 흔적들을 드로잉의 어법으로 서술하며, 화면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조율하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작업을 반복해 왔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화면에 잘린 종이를 골라주는 방식을 넘어, 그 밑바탕이 되는 재료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변주해 보고자 한다. 드로잉의 토대가 되는 '종이를 직접 만드는 일'은 작가가 쉽게 만지고 사용하던 종이 파편을 잘 으깨어 다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일이자, 흩어지고 사라지기 쉬운 주변의 이야기를 끌어모으는 드로잉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또한, 동인천의 전통공예 거리에서 찾은 새로운 작업의 재료인 닥종이를 이용하여 종이 인형극 형태의 작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는 쉽게 구겨지거나 물어버리는 종이의 특성을 재료 삼아, 울퉁불퉁하고 거친 표면 위에 흑연을 안착시키는 다양한 경로를 고민하는 일이 될 것이다.

Born in Incheon in 1990, based in Seoul

IM Sungoo utilizes paper and graphite as the primary mediums to construct both small and large narrative units, intricately interweaving them to form a three-dimensional narrative experience. Through her work, she consistently employs the language of drawing to depict the pervasive traces of individuals and groups in everyday life, orchestrating events on the paper and stepping back to observe them from a broader perspective.

At Incheon Art Platform, she will go beyond the collage of cut paper on the screen and try to produce the underlying materials herself and transform them. The act of making paper, which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her drawings, becomes an extension of her artistic expression. The artist gathers fragments of paper and consolidates them into a single mass again, encapsulating the fleeting and dispersing narratives of her surroundings. Additionally, she plans to craft a paper puppet theater piece utilizing a new material she discovered in Dongincheon's traditional craft street: dak paper. The idea is to explore innovative techniques for anchoring graphite onto the textured and uneven surface, using the material's characteristics of being easily crumpled or torn.



seongu66@gmail.com

dhj314@gmail.com

www.imsungoo.com

www.deokhyeon.com

1986년 서울 출생, 서울과 경기에서 활동

정덕현은 본인의 일상 혹은 누군가의 삶과 관계된 사물을 화면에 구성하여 현실 인식에 대한 새로운 독해를 제안하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작가는 회화에 관한 의심과 믿음의 문제를 고민하는 동시에 주변 일상을 다루며 사회적 문제를 담아왔다. 최근에는 관계망 속에서 형성되는 특유의 정서인 '눈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눈치 보는 초상'으로 그려내고자 한다.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기간에는 최근 작업인 <눈치 인간(Noonchi Person)>(2022~) 연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관계 속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순간에 놓인 인간은 이유가 어떠한 약자의 상태가 된다. 이처럼 '눈치 인간'은 개미군단 속 이를 없는 일개미이자, 카메라 렌즈에 붙은 날벌레이며, 테이블 위에 놓인 사물이기도 하다. 작가는 자신이 포착한 '눈치 인간'을 통해 들려서는 안 될 짓국은 폭로를 시도하면서 한국의 시대성에 관한 해석을 이어가고자 한다.

Born in Seoul in 1986, based in Seoul and Gyeonggi

JEONG Deokhyeon's practice revolves around composing objects that are connected to his own or others' daily lives on the screen, offering a fresh perspective on the perception of reality. While exploring the realms of doubt and faith within the painting, the artist also delves into social issues by examining the nuances of everyday life that surround him. Recently, he has dedicated his focus to the concept of "noonchi," a unique emotion that emerges within the complex web of relationships, aiming to portray it as a "portrait of noonchi."

During his residency at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 will continue his ongoing project, *Noonchi Person* (2022~). This body of work captures humans in the midst of experiencing "noonchi," a distinct emotion that arises within relationships and renders them vulnerable for various reasons. These individuals embody the nameless worker ants within an ant colony, the insects caught on the camera lens, and the objects resting on a table. Through the portrayal of these "noonchi people," the artist seeks to unveil the unspoken, shedding light on the unspeakable aspects of human experience and offering his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zeitgeist.



1989년 서울 출생,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

Born in Seoul in 1989, based in Seoul

최가영은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작가는 현실과 이상의 관계에 대한 물음을 바탕으로,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의 낭만과 연출된 환상을 회화라는 매체로 표현하고자 한다. 회화적 설치와 연출을 통해 가상의 현장감을 유도하는데, 이는 인식과 경험의 범주, 그리고 회화의 의미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생존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실과 이상의 관계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 머물며, '이국정서'를 상징하는 역할의 이미지를 소재로 한 회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정한 장소나 시간의 연출을 위해 채집되거나 유통되는 열대식물, 바위 등과 같은 자연적인 시공의 질서에서 이탈한 대상을 매개 삼아, 비밀상적인 이미지가 도시 일상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소비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CHOI Kayoung majored in Oriental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er MFA from the same institution. Anchored in the inqui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and the ideal, the artist seeks to convey the romance of the unexperienced and the fabricated illusion through the medium of painting. Through painterly installations and performances, she evokes a sense of virtual presence, which prompt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categories of perception and experience, and the significance of painting. Recently, she has been engrossed in pondering how to interpret and articulate the dynamic between reality and the ideal,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theme of "survival."

During her residency at Incheon Art Platform, she intends to embark on a series of paintings inspired by imagery that symbolizes "exoticism." Employing elements that disrupt the natural order of space and time, such as tropical plants and rocks, which are collected and distributed to evoke specific settings or moments, she aims to explore how extraordinary images survive and are consumed in urban life.

ckyliae@gmail.com

asdfjkl0191@gmail.com

www.chekayon.com

www.instagram.com/ilverdbck



1990년 서울 출생, 서울에서 활동

Born in Seoul in 1990, based in Seoul

한재석은 서울대학교에서 조소과를 전공하고 미국 시카고 예술대학교에서 사운드 아트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너레이티브 아트(Generative Art)와 모노하(Mono-ha)에 관심을 가지고, 물리적인 규칙이나 시스템화된 기계장치를 사용한 조각과 설치, 사운드 퍼포먼스 작업을 해오고 있다. '시스템'을 작업의 큰 틀이자 규칙으로 삼는 작가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작업을 수행해 가며 제작된 사물 또는 장치와 교감하는 것에 흥미가 있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협업하여 작업의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최근 관심이 있는 앰비소닉(Ambisonic) 기술을 탐구하고, 이를 피드백 사운드에 적용하여 분권화된 입체음향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작가가 지속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자연 모사 기술에 대한 심화 연구이자, 그에 따른 표현 형식을 실험하는 일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 '시스템'을 모듈화하거나 오픈소스화하여 다른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HAN JSUK received his BFA in Sculptur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is MFA in Sound Art from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USA. With a keen interest in Generative Art and Mono-ha, he has been working on sculptures, installations, and sound performances that utilize physical rules and systemized machinery. Employing "system" as the framework and guiding principles for his work, he derives satisfaction from interacting with the objects or devices generated within the defined rules. Additionally, he collaborates with artists from diverse disciplines, expanding the horizons of his artistic practice.

At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 intends to explore Ambisonic technology, a subject that has captured his interest recently, and integrate it with feedback sound to develop a decentralized stereophonic system. This exploration will intersect with the artist's ongoing fascination with nature imitation technology and experimenting with new forms of expression. Moreover, he envisions modularizing or open-sourcing this "system," transforming it into a platform that invites participation from other artists.



현승의

1991년 제주 출생, 서울과 제주에서 활동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현승의는 자연과 공간에 대한 탐구를 줄곧 이어왔다. 작가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면서, 오랫동안 느껴온 관광지라는 공간의 비대화된 낭만과 쉽사리 표면 위에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를 냉소적인 시선으로 재구성한다. 이상화된 풍경 너머에 작동하는 자본의 논리와 환경, 사회 문제를 밀도 있는 회화로 그려냄으로써 오늘날의 모습을 다층적인 이미지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실과 낭만이 교차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의 불안을 들춰낼 뿐만 아니라, 그 간극 속의 다양한 현상을 묘사하여 포화 상태에 이른 현대의 공허함을 드러낸다.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기간에는 작업의 영역을 확장하여 제주 이외 지역을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인천이 가지고 있는 해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생태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여러 담론을 수집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 공존의 역학 관계를 시각적으로 풀어내길 예정이다.

Born in Jeju in 1991, based in Seoul and Jeju

After majoring in Oriental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YUN Seungeui has been exploring nature and space. Born and raised on Jeju Island, the artist offers a critical reconstruction of the excessively idealized tourist sites and the hidden narratives that lie beneath their surface. Through intricately layered paintings, the artist portrays the interplay between the forces of capital, the environment, and social issues that extend beyond the romanticized landscapes, thereby presenting a multi-dimensional representation of the contemporary state of affairs. Her work not only unveils the anxiety arising from the convergence or collision of reality and romanticism but also exposes the voids within the saturated modern world by depicting various phenomena that exist in the gaps.

During her residency at Incheon Art Platform, she intends to expand the scope of her artistic exploration beyond Jeju Island. In particular, she aims to examine the ecological aspects of Incheon's identity as a maritime city and gather diverse discourses that will help visually unravel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as well as the dynamics of coexistence.



HYUN Seungeui

황규민

1994년 충청도 출생, 서울에서 활동

황규민은 동양화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화보'의 형식을 빌려 과거 참조에 관한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내고 있다. 작가는 동양화단을 비유한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동시대 미술품을 입력하는 작업을 전개하는데, 이러한 실험의 중요한 장치로 가상의 인물 '황 씨'를 등장시킨다. 이 시스템의 주요한 틀은 긴 세월 그림 감상을 줄인 미술 애호가로 설정된 가상의 인물 황 씨가 원작을 배울 수 있도록 '화보(Manuals)'를 제작하고, 화보 낱장을 점, 획 등 '단위'로 이용하여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최근 자신의 그림만으로 제작하던 화보의 범위를 서화 매체를 이용하는 다른 작가의 그림으로 확장하여 화보를 제작하고 있으며, 화보의 기본 디자인을 변형할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에 머물며, 기존에 집중하고 있던 '화보의 모본'과 '화보 제작'을 이어가고, 이들을 활용한 서화의 새로운 규칙을 찾기 위한 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화보 학습하기' 방법에 관한 실험을 심화하고자 하며, 가상 인물인 황 씨의 성격과 세계관을 보완하는 작업을 퍼포먼스, 연기, 게임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상하려 한다.

Born in Chungcheong Province in 1994, based in Seoul

HWANG Kyumin delves into the essence of Oriental Painting by posing fundamental questions about its definition, employing the format of a "manual" to unravel narratives from the past. The artist establishes a unique system for analogizing Oriental Paintings, incorporating contemporary artworks within it, and utilizing the fictional character "Mr. Hwang" as a significant device in these experiments. The core framework of this system revolves around Mr. Hwang, an imaginary art enthusiast with a long-standing appreciation for paintings. He creates "manuals" as a means to study original works and employs these manuals as "units," such as dots and strokes, to generate new paintings. In recent developments, the artist has expanded the scope of his manuals beyond his own paintings to include works by other artists, employing the medium of calligraphy. He is actively exploring diverse approaches to transform the foundational design of his manuals.

At Incheon Art Platform, he plans to continue his ongoing focus on "original paintings" and "manual production," while embarking on experiments to establish new principles for calligraphy. Specifically, he aims to deepen his experiments on the methodology of "learning manuals" and envisions creating works that complement the personality and worldview of his fictional character, Mr. Hwang, in various forms such as performance, acting, and games.



herworks@naver.com

skekdmask@naver.com

www.hyunworks.com

www.kyuminhwang.com

공연예술부문

PERFORMING
ARTS

오헬렌
임호경

Ohelen
IM Hokyung

오헬렌

1983년 구룡포 출생,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

오헬렌은 음악을 도구로 삼아 다양한 해프닝을 실험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작가는 대중음악과 여타 사운드 작업의 구분을 한정 짓지 않고, 두 경계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자 한다. 고유한 시간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성을 바탕으로 삼아 반복될 수 없는 선형적인 사건을 조직하고, 그 안에 인물들을 초대하면서 자연스레 기록되는 일련의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 작가는 익숙한 것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음악이라는 매체 안에서 다양한 소리를 초대한다. 짧은 프레임 내 반복적으로 인지되는 불규칙하고 정제되지 않은 소리를 음악으로서 주목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연 과정에서 자유롭게 발생하는 소음까지 유기적인 흐름으로 엮어내고자 한다.

인천아트플랫폼에 머무는 동안, 대화와 음악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공연을 상상하며 오로지 소리를 찾고 쌓아가는 과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Born in Guryongpo in 1983, based in Incheon

Ohelen utilizes music as a tool for constant experimentation with various forms of artistic happenings. She avoids strict categorizations between popular music and other sound works, instead embracing a fluid movement between them. Drawing inspiration from the unique immediacy that arises within specific moments and spaces, she places emphasis on a series of spontaneous events. Diverse characters are invited to these events, which unfold linearly and cannot be replicated, and they are recorded naturally. With an abiding interest in recontextualizing the familiar into something new, the artist seeks to incorporate a wide range of sounds within the realm of music. She recognizes that even irregular and unpolished sounds can assume musical qualities through repeated perception within a concise timeframe. In this vein, her ultimate aim is to weave together the freely occurring sounds that emerge during the performance process into a cohesive and organic flow.

During her residency at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 envisions a performance where conversation and music naturally intertwine. Her primary focus will lie in the process of discovering and constructing sounds.

임호경

1987년 서울 출생, 강릉과 서울에서 활동

임호경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상과 연기를 전공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디지털 퍼포먼스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다원예술단체 ESPACE_ 에스페이스를 운영 중이다. 얼음과 불이 공존하는 이미지에 관심을 두고,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 연극, 미디어 아트, 영상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작가는 시(詩), 서(書), 화(畫)가 분화되기 이전의 예술을 상상하며, 특정 분야와 장르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주로 다원예술적 관점에서 혼합된 속성의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사물이나 현상의 내피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속성의 두 개체가 공존하는 순간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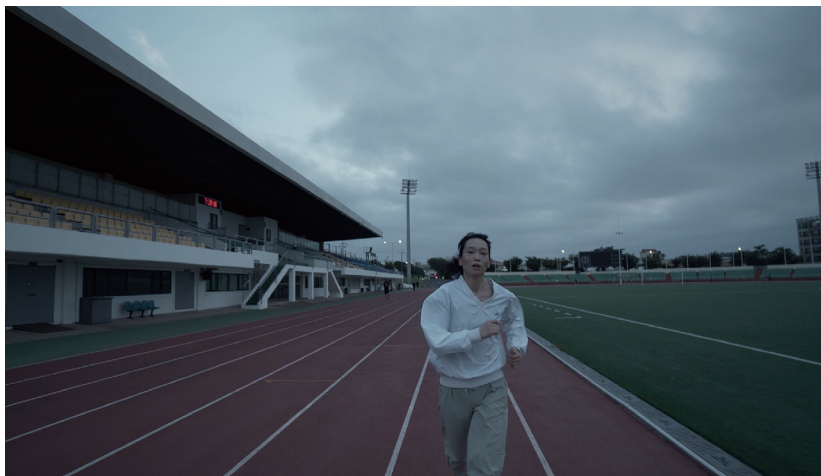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오브제로서의 그림 또는 신체가 인천이라는 지역적 맥락으로 옮겨지며, 특정 공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작가는 이동의 과정에서 변하는 사물의 의미와 속성을 발견하게 되는 행위 자체에 '공간/되기'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각 그림 또는 신체가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에 대한 전시와 퍼포먼스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 '무용(無用)한 무용'을 진행하며, 'x = ~x'라는 모순된 명제를 일상적 행동 양식과 특정 사물들에 대입해 보는 행위를 지속하려 한다.

Born in Seoul in 1987, based in Gangneung and Seoul

IM Hokyoung studied video and acting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obtained a master's degree in digital performance at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and completed a doctoral program in digital storytelling. He currently runs ESPACE17717, an interdisciplinary arts organization. Fascinated by the coexistence of ice and fire within imagery, his artistic endeavors encompass a wide range of mediums, including movement-based performance, theater, media art, and video. Imagining art before the differentiation of poetry, writing, and painting, he seeks to create works that transcend the boundaries, embracing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hat defies categorization. Central to his practice is the exploration of objects and phenomena, delving into their inner lives and fostering moments where disparate attributes harmoniously coexist.

During his residency at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 will investigate the transfer of paintings and bodies as objects into the local context of Incheon, establishing connections with specific spaces. He refers to this process of discovering the evolving meaning and properties of objects as "space/becoming." The artist plans to present an exhibition and performative works that explore the transformative nature of each painting or body. Additionally, he will continue his exploration of everyday actions and specific objects through a new project titled Dance with Uselessness, employing the paradoxical proposition of "x = ~x."

Recording Room Concert, 2022, 라이브 퍼포먼스, 18분 22초, SBA미디어콘텐츠센터, 서울.
Recording Room Concert, 2022, live performance, 18min. 22sec., SBA media contents center,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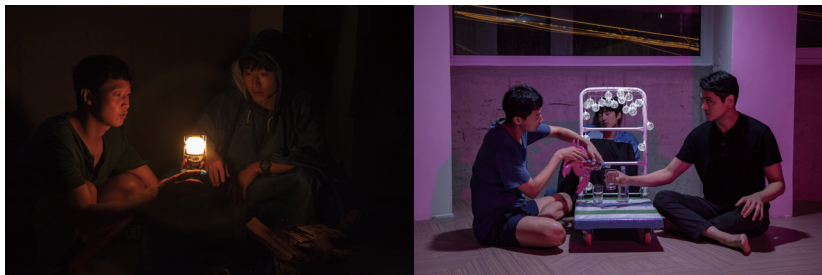


wonder@ohelen.co.kr

imagine21c@hanmail.net

www.linktr.ee/espace17717

www.ohelen.co.kr



딥 시아 베이비, 2019, 공연, 70분, 에스페이스2, 서울.
Deep Sea Baby, 2019, performance, 70min., Espace 2, Seoul, Korea.

인천예술가스튜디오지원

S T U D I O

S U P P O R T

P R O G R A M F O R

I N C H E O N

A R T I S T S

강 철 KANG Chul
김진주 KIM Jinju
박유미 PARK Yumi

강 철

KANG Chul

kangsteel58@naver.com

인천 배다리 마을과 원도심에서 활동

강철은 오래된 건축물과 쓰임을 다한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재개발로 인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풍경을 기록해왔다. 인천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존재하던 풍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축물이 세워지는 과정을 관찰하며, '사라져가는 존재'에 관한 탐구를 이어오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기간에는 <건물의 초상, 도시의 신기루>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인천 지역 곳곳에 멈춰 선 공장, 문닫은 상점, 폐교, 기울어진 전봇대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담아내고자 하며, '이미 사라진 풍경'과 '새롭게 생겨난 풍경'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려고 한다.

Based in Baedari village and the old city center of Incheon

With an interest in old buildings and objects that have outlived their usefulness, KANG Chul has been documenting the rapidly transforming urban environment caused by redevelopment. By observing the process of demolition of existing landscapes and the subsequent construction of new buildings within Incheon's old city center, he has continued his exploration of "disappearing beings."

As part of his residency at Incheon Art Platform, KANG will develop his project *Portrait of a Building, Mirage of a City*. The artist will capture a diverse array of images depicting abandoned factories, shuttered shops, deserted schools, and askew electricity poles scattered throughout the Incheon region. Through his work, KANG endeavors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vanished landscape of the past and the newly created urban scenery that replaces them.



창광교회 수난, 2023, 캔버스에 아크릴, 73×60cm.
Cheongwang Church Suffering, 2023, acrylic on canvas, 73×60cm.



김진주

KIM Jinju

박유미

PARK Yumi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

김진주는 인천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프랑스 디종고등미술학교에서 순수 미술을, 파리-소르본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였다. 2019년부터 '이상화 (idealization)'를 작업의 주요한 주제로 삼고, 다양한 관점에서 집단과 개인의 상호 관계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상화된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형식 실험에 몰두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기간, 작가는 창작회극 <앵무새주인 살인사건> (2020)을 각색하여 롤플레이팅 (RPG) 게임 형태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다수가 선택한 결정에 의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상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관찰하며 '집단 경향'과 '이상적 자기 발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한다.

Based in Incheon

KIM Jinju studied Visual Design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Fine Arts at Dijon National School of Art, France, and Philosophy at the University of Paris-Sorbonne. Since 2019, she has dedicated her focus to the theme of "idealization" in her artistic work. Through extensive research, she explores the interrelatedness of groups and individuals from various perspectives. Recently, her artistic endeavors have centered around the concept of "idealized belief" and she has been experimenting with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

During her residency at Incheon Art Platform, she will be adapting her original play *The Murder case of the Parrot Owner* (2020) into a roleplaying (RPG) game. Participants will experience a virtual reality environment where the unfolding narrative is shaped in real-time by the collective decisions made. By observing this dynamic process, the artist aims to provoke contemplation topics such as "group tendencies" and "idealized self-development."



kjinju824@gmail.com

yumispark@gmail.com

www.instagram.com/jinju_kim_

www.parkyumi.com

인천과 서울에서 활동

박유미는 추계예술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독일 라이프치히 미술대학교에서 미디어아트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2년부터 가부장제에서 타자화된 노년 여성의 삶을 노동과 예술의 관점으로 주목하며 공동체 기반의 프로젝트를 지속 중이다. 특히 노년 여성이 창작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다양한 언어와 이미지로 재생산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여성 주체의 말하기를 중심으로 노년 여성이 생산한 다양한 매체의 언어와 이미지를 유의미하게 짚어보려 한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고유한 존재이자 욕망, 불안, 감정, 혹은 지금의 상태를 표출하면서 역사를 재맥락화하는 생산자로서 노년 여성의 등장을 기대하며,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Based in Incheon and Seoul

PARK Yumi received her BFA in Western Painting from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and her Diplom in Media Art from Academy of Fine Arts Leipzig, Germany. Since 2012, she has been working on a community-based project that sheds light on the lives of marginalized elderly women within patriarchal structures, examining their experiences through the lenses of labor and art. Her research primarily focuses on exploring how elderly women become creative agents and adeptly convey their lives through various languages and images.

At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 will dedicate her attention to the language and imagery produced by elderly women across different mediums, with a specific emphasis on the narratives of female subjects. She aims to highlight the unique identities that emerge among elderly women and showcase their diverse perspectives as creators who skillfully recontextualize history while expressing their desires, grievances, emotions, or current realities.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발행일 2023년 7월	© 인천아트플랫폼, 2023 수록된 글과 도판의 저작권은 해당 작가와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으며, 저작자와 인천아트플랫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cheon Art Platform Artist-in-Residence program	Published on July, 2023	© Incheon Art Platform, 2023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copyright holders and Incheon Art Platform.
발행인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구	편집 김경민, 황소영	인천아트플랫폼 22314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해안동 1가) Tel. 032. 760. 1000 Fax. 032. 760. 1010	Publisher LEE Jonggu, CEO, Incheon Foundation Art & Cultrue	Editor KIM Kyungmin, HWANG Soyoung	Incheon Art Platform 3, Jemullyang-ro 218beon-gil, Jung-gu, Incheon, 22314, South Korea Tel. +82. 32. 760. 1000 Fax. +82. 32. 760. 1010
발행처 인천아트플랫폼	영문번역 말돼지	www.inartplatform.kr	Published by Incheon Art Platform	Translation Malpigg	www.inartplatform.kr
총괄 문화예술공간 본부장 손동혁	그래픽디자인 유나킴씨		Director SON Donghyek, Managing Director, Division of Cultural Space	Graphic design Yunakimc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장 이영리 박성훈, 이은진, 이채리, 김경민, 황소영	인쇄 키즈핸즈		Incheon Art Platform Team Manager LEE Young-ri PARK Sunghoon, LEE Eunjin, LEE Chaeri, KIM Kyungmin, HWANG Soyoung	Printing Kids Hands	

